

# 여성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심리를 통해 본 여성—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남성과 여성 누가 더 우월하느냐 누가 더 열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성의 어떤 특징을 가질까?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다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여성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여성에게 레이저 탐지기가 있다. 여성들은 상대방이 당황하고 있는지 가슴 아파하는지 금방 눈치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수호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해 온 여성은 다른 이의 미묘한 분위기나 변화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잘 듣는다고 한다. 여성은 소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는 것처럼 남성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있으며 '초월적인 힘'이라 느껴지는 육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터치에 더 민감하다. 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은 이런 욕구를 더 갖게 한다고 한다. 여성

들은 대화를 하면서 남성보다도 4~6배 더 상대방을 터치(접촉)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은 미각과 후각도 남성보다 월등한 편이다.

## 왜 여성들은 수다를 좋아할까?

여성은 좌뇌가 훨씬 빨리 발달되어 언어와 대화에 탁월하다. 남성은 우뇌가 발달하여 공간, 논리, 지각에 탁월하다. 여성은 우뇌와 좌뇌의 연결이 더 우수하다. 여성호르몬인 신경세포가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촉진한다고 한다.

여성은 말을 할 때 양쪽뇌가 사용되기 때문에 훌륭한 말재주꾼이 된다. 말하기도 즐기고 말도 많이 한다. 여성은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낼 수 있다.

여성은 TV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시간들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으려 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여성은 문제가 있으면 말로써 스트레스를 푼다. 말하기는 하나의 유대강화 행위며 원기 회복책이 된다. 여성의 말을 들어주고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이에 대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남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은

사물이나 물건을 좋아한다고 한다. 여성은 사람을 좋아한다. 남녀의 두뇌의 구조차이는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여성은 사람들과 그들의 정서를 기억하는 반면 남성은 사물이나 그 형태를 기억한다. 남성은 권력과 지위를 원하고 경쟁하지만 여성은 관계와 협조를 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 여성을 힘들게 하는 호르몬

월경 후 21~28일 사이에 여성은 호르몬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서 흔히 월경 전 긴장증세(PMT)라고 불리는 격심한 위축 증상에 의해서 암울함, 어두움, 우울증, 심지어 심한 경우 자살충동까지 느끼기도 한다. 여성 25명당 1명 꼴로 호르몬의 불균형을 느끼며 성격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과거의 늘 임신 상태에 있었던 여성보다 현대여성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성은 평생 평균 350~400번 PMT 증상을 겪어야 한다. 아이가 없는 여성은 평생 약 500회 정도의 증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 남성은 40~50대가 되어도 균일하지만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저하되는 폐경기가 되면 여성은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호르몬적 변화를 겪게 된다.

### 가스레인지 같은 남성, 전자 오븐 같은 여성

남성의 성충동은 가스레인지와 같이 순간적이지만 여성은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는 편이다. 남성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성충동이 감소하지만 여성의 성충동은 서서히 증가하여 연령대로 보면 36~38세에 최고조에 도달한다.

남성을 흥분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신체적인 것이지만 여성은 청각적이고

촉각적이며 애무와 로맨스를 지향한다고 한다. 남성은 성과 사랑을 철저히 구분하지만 여성에게 있어 성과 사랑은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흔히 이야기하는 다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생물적 구조에 대한 다름의 의미가 크다.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을 통해서 여성을 여성다움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에 따른 성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시대가 변하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성역할에 대한 시각과 가치체계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실제로 생물학적 구조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았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의미 또한 절대적으로 여성이 여성다움만을 남성이 남성다움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성다움을 하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이해에 의해 태생적으로 숙명적으로 성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여성 자신이 또한 그로 인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사회적으로 볼 때 권력과 성취를 추구하는 남성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어 가지만 보다 원활하고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다움의 가치체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축복의 경험을 갖는 것은 여성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한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사실마저 다르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PEEK**

※ 출처 : 말은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앨런 피즈·바바라 피즈 지음, 이종인 옮김, 가야넷